

‘코스닥 활성화’ 정부 의지에 기관 매수… 1000돌파 무난

코스닥 랠리

(上) 코스닥 새 역사… 수급 개선

정부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연중 최고치 1000p 넘을 듯
“바이오주 조정 염두” 우려도

코스닥시장이 연일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코스닥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분석해 본다. 또 과거 닷컴버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본다.

코스닥지수가 최근 9거래일 동안 9.3%나 급등했다. 정부의 확고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의지가 코스닥 주가를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다만 바이오주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 코스닥 ‘버블’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12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코스닥 지수 그래프가 급등락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0.54포인트(2.41%) 오른 873.05로 장을 마쳤다. 지수 증가가 870을 넘는 것은 2002년 4월 18일(876.80)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증가 기준 시가총액은 역대 최대인 309조3000억원을 달성했다.

◆수급 활성화 대책에 코스닥 ‘방긋’
코스닥 상승세의 요인은 단연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다.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

지며 주가에 기대가 실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해 침체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연기금에게 코스닥 차익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준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되고 소외된 코스닥 상장사에도 기관의 자금이 들어가고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에는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내놓

고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한다.

서보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은 코스닥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2월 통합지수와 6월 중소형주지수 개발의 수급효과는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이벤트다”고 말했다.

◆‘주가 오른다’에 베팅… ‘버블 우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과 전망이 쏟아지면서 지난 12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역대 최대치인 12조8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기록한 역대 최대 거래대금(10조322억원)보다 20% 이상 많은 것이다. 투자자들의 통큰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일부 투자자금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자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생되기도 했다. 코스닥150지수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 현물 가격이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됐기 때문이다. 지수 급등으로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시킨 사이드카는 2009년 5월 26일 이후 약 8년 7개월 만이다. 투자자들이 어느때보다 코스닥의 상승세를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올해 코스닥 연중 최고치는 무난히 9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증권은 연내 1000 돌파를 예상했다.

다만 바이오주의 과도한 상승으로 ‘주가 버블’이 커지고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하다. 한 달 전 20만원이었던 셀트리온 주가는 이날 12일 34만15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새 63.0% 오른 것. 코스닥 시총 2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같은 기간 9만40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57.6% 올랐으며, 시총 3위 신라젠은 16.8% 상승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주들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장세”라며 “투자에 앞서 바이오주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301@metroseoul.co.kr

월드컵·올림픽 특수… 文 집권 2년차 증시도 호황?

역대 올림픽 ‘코스피 수익’ 동반자
월드컵 기간 수혜주도 나타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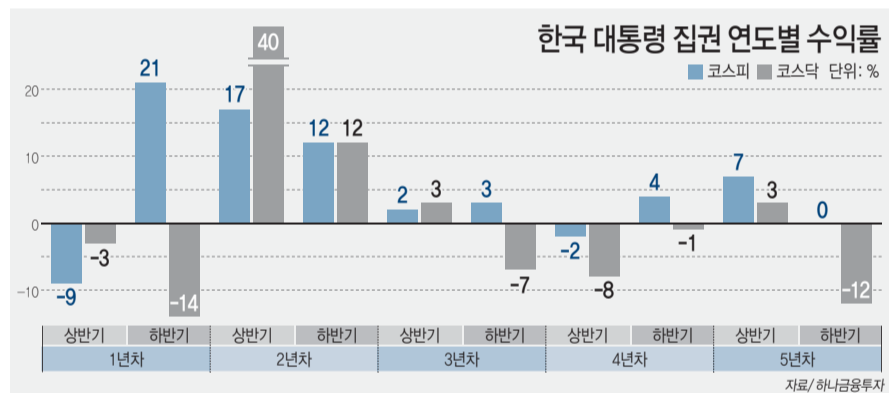
“역사 그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운을 갖고 있다(History does'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큰 영향을 주곤 한다. 올해는 문재인 집권의 집권 2년차.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등 큰 이슈가 있다. 과거 경험상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들이다.

전문가들은 “심리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는 주식투자에서 역사를 통해 지혜를 깨우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집권 2년차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 17%
새 대통령의 탄생은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재료다. 경제 주체의 하나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4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은 역대 대통령(15대 김대중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차 상반기에 평균 17%(코스피지수 기준) 상승했다. 하반기 상승률(12%)보다 높다. 3년



차엔 2~3%, 4년차엔 -2~4%로 2년차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닥시장은 집권 2년차 상반기 평균 주가상승률이 40%에 달했다. 하반기엔 평균 12% 올랐다.

하나금융투자는 새 정부 출범 1년차에 경제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뒤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실행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집권 2년차를 맞는 1월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높다. 성장 정책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면서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정부 정책으로 ▲중소 벤처 기업 및 코스닥 활성화 정책 ▲4차 산업

혁명 대응 방안 ▲한중 관계 회복 노력 등을 꼽았다.

◆동계올림픽, 코스피와 ‘동반자’ 관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지구촌 대형 스포츠 축제다. 개최국은 물론 참가국들도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올해 평창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린다. 북핵 위험 등 전쟁 위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역대 올림픽 개최국(하계올림픽 기준)을 보면 개최 1년 전과 개최 기간, 개최 1년 후 증시 등락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는 올림픽 개최 1년 전인 1987년 38.2%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개최 기간에는 9.4% 하락했다. 개

최 1년 후 증시는 1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베이징올림픽 개최 1년 전 증시 수익률은 -41.4%였지만 개최 기간 -11.8%로 회복세를 보였고 1년 후에는 23.1%까지 치솟았다. 개최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올림픽 효과는 천차만별이란 얘기다.

그리스는 2004년 올림픽을 개최하며 과도한 지출로 아테네시에 상당한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

다만 올림픽만 놓고 보면 코스피 수익률은 ‘동반자’관례라 할 만 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코스피가 오른 경우가 많아서다. 이런 경향은 1990년 이후 네차례나 이어졌다.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11.05%),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10.51%),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9.38%), 2016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3.32%) 등이 열린 해에 모두 상승했다.

반면 1996년 말 코스피는 전년 말보다 26% 하락했다. 시드니올림픽이 개최된 2000년 코스피는 전년도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2008년에는 40%나 하락했다.

동계올림픽은 어떨까. 90년대 이후 7번의 올림픽이 열렸고, 이중 4번이 올랐다.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94년

코스피는 18.61%나 올랐다.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18.61%),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3.99%),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21.88%) 등이 열린 해에도 코스피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국가대표팀 발 끝에서 나올 경제적 효과는?

오는 6월 러시아월드컵이 열린다. 월드컵이 열린다면 전세계에 공보다 돈이 더 많이 풀려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인원 400여명이 TV 앞에 앉아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큰돈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표한 2002년 경제백서를 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원이 넘는다. 한·일 월드컵은 투자·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모두 26조4600억원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도 경기장 건설 등의 효과 덕분에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대회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한국이 4강진화를 펼친 덕에 현대차는 6조~7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거뒀다.

월드컵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회기간 주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독 월드컵만 되면 빛을 보는 수혜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민호 기자 kmh@

고금리·고원화·고유가 ‘3高’시대… 올 성장률 3% 상향?

한은 금통위 18일 개최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연 3%대로 끌어 올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연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주열 총재는 이달 초 신년 다과회에서 “올해 연 3% 언저리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3%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

면서 한국경제의 수출 호조세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또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이 점차 완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측했다.

내달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드는 등 완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490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최근 전국 제조업체 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는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세계은행(WB)은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로 유지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최근의 수출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원화 가치 강세(고원화)에 더불어 유가가 고점(고유가)을 찍는 등 ‘3고(高)’가 예상되는 등 하방 압력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임에 따라 건설투자 시장이 침체되면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제약될 것으로 봤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연 2.9% 등 2%대 후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 지난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연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이봉준 기자 bj35sea@